

'98 제2회 전국여성장애人大會



나, 여성장애인, 그리고 권리찾기

여성장애인 연대의 지평을 향하여



성평등도서관 여기



GL00004213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기 간 : 1998년 10월 29일 ~ 10월 31일

● 장 소 : 여전도회관

● 주 최 : '98 제2회 전국여성장애人大會 조직위원회

● 주 관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후 원 : 보건복지부, 여성특별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국민회의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예장여전도회전국연합회, 한국재활재단, 한겨레신문사

3.4
63전

00004213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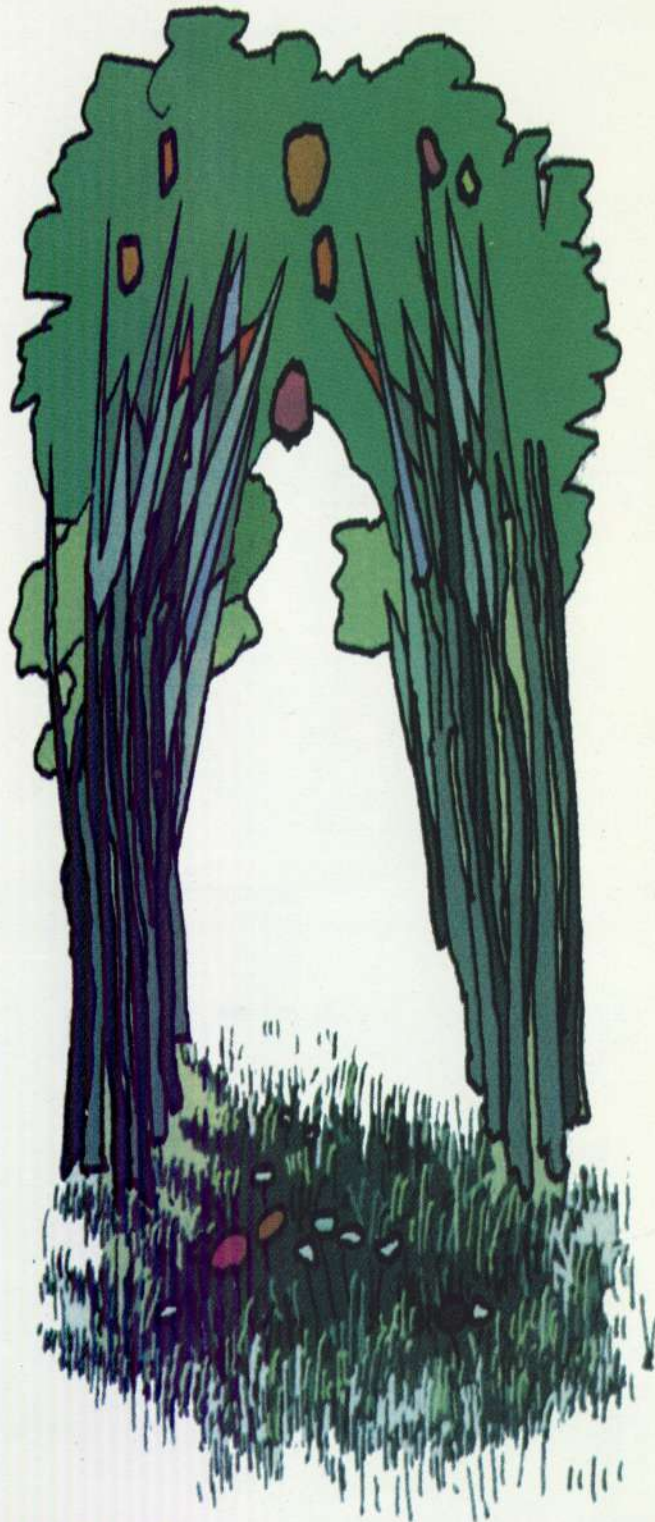
내 몸에 돌은 가시 대신
반짝이는 비늘 달고
헤엄치고 싶어,
나의 헤엄을 뭐라고 부르려!
휠체어에 기댄 친구 정직한 눈으로 답하길,
'해방' 어때 한다.
80년대 냄새 난다고 웃었다.
웃어넘기다 목구멍에 울컥 치미는 건,
90년대가 다가도록
80년대를 서성인 건 비단 너의 말뿐이려!
더 즐겁고 더 고독하게 서성인 건
해방되지 못한 우리 몸
우리 마음

우리의 목소리는
목구멍에서도 나올 수 없어
담 밖을 넘지 못하고
때때로 갇힌 짐승처럼
쉴쉴히 울부짖어도
귀 기울여 줄 자 하나 없었으니,
서성이던 시대가 어찌 80년대부터라
우리의 서성임은 너무 오래 된 옛날 이야기라
호랑이가 담배 물고 웃으며 가고 있다.

지금껏 나 하나
모기 소리로 잉잉대다가
너의 소리,
어디에고 있을 여러분의 소리,
어렵고 반갑게 만나 어우러지나니,
우리의 노래는 투쟁이 아니요
혁명이 아니요,
침얼대는 아이를 토닥이는 자장가요
식어 가는 반쪽 가슴을 데우는 사람이요
작지만 아름다울
나의, 우리의 존재이니

우리의 노래가
듣는 이의 귀를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의 노래가
하나의 메시지를 단 목소리로 달려가
온 땅과 온 하늘을 울리려하니

지금부터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깊은 울림으로
모두가 따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합창이 되게 하라
합창이 되게 하라





이우정

〈명예대회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화 수석대표, 14대국회의원〉

“나, 여성 장애인, 그리고 ‘권리 찾기’(여성 장애인 연대의 지평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2회 전국 여성 장애인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장애인, 특히 여성 장애인은 특별한 관심이나 배려를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남존여비의 사상으로 뭉쳐진 가장 문화 속에서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2중의 차별과 소외를 당하면서 고난의 길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체념적으로 살아오신 선배들과는 달리 이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식에서 1996년에 처음으로 “가정과 여성 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제1회 여성장애인대회”를 개최하여 여성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제2회 여성장애인대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느라고 노고를 아끼지 않은 여성 장애인분들과 이를 뒷받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치하합니다.

선진국 또는 후진국인가는 그 나라의 소외된 국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98년도 국가 예산이 국방비 19.1%, 교육비 15.95%인 현실에서 복지비는 겨우 6.05%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가 소외된 국민들에 대해 얼마나 배려하지 않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98년도 이전의 예산을 보면 이 비율은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모든 공공시설이나 교육 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독일에 가서 본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시설, 직업 보도 시설들은 참으로 부러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열하고, 냉혹한 경쟁에서 이기는 강자만 살아 남을 수 있는 21세기 자유 시장 경쟁 체제에서는 특히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만 장애인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정신적인 장애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 모두가 연대해서 풍요롭고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의 “여성장애인대회”를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의 행운을 빕니다.



김성재

〈대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나, 여성 장애인, 그리고 권리 찾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 2회 여성 장애인 대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전에 열린 1회 대회가 우리 사회에 여성 장애인의 존재와 현실을 알려 내는데 목적을 둔 대회였다면 이번 대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기반으로 여성 장애인 운동을 더 활성화하고 전국 여성 장애인들의 연대를 도모해서 여성 장애인 스스로 권리 찾기에 나서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대회로 마련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여성운동에서도 외면 했으며, 장애계 내부에서도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구체화하지 못했던 여성 장애인 문제를 우리가 쟁점화해서 여성 장애인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된 이유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현재 여성 장애인들이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성을 띠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성 장애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그리고 장애인 차별이 엄존한 현실에서 여성 장애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권리에서도 여성 장애인들은 소외되고 있고, 축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결혼도 자녀 양육과 가사에 대한 어려움이 상존해 여성 장애인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여성 장애인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여성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다. 사회가 건강하려면 먼저 그 사회 소수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수계층이 당면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사회가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여성 장애인 문제가 해결 되는데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지난 95년부터 여성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내에 빗장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여성 장애인들의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실태 조사와 국제 대회 참가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 습니다. 이제 그 활동이 전국 여성 장애인들의 연대를 이룩해내는데 까지 이른 것은 비단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여성 장애인 운동의 소중한 성과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성과를 이루어내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선 당사자인 여성 장애인들의 주 체적인 노력이 있었고 여성 장애인들과 함께 여성 장애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함께 하려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여성 장애인과 도움을 준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여성 장애인 대회를 치르면서 우리가 다짐하는 것은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여성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인사말에 대신합니다.



이예자 <운영위원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특별위원장>

'96년에 제1차 여성장애인대회를 개최하면서 가장 절실하게 염두에 두었던 목적은 '여성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부정할 수 없는 한 구성원으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94년 '빛장을 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들이 모이기 시작한 이래 그동안 여러 활동을 통해 여성 장애인들의 존재가 점차 사회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육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고용에서 밀려나는 등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존엄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또한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이 사회에서 계속되는 불평등과 힘겹게 싸우고 있으면서도 왜 여성장애인들은 가난과 멸시와 불행의 대명사가 되어야만 하는가?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했을 때 그 나라의 여성 장애인 그룹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진흙이 질퍽거리는 시장 한 구석에다 좌판을 벌려놓고 한웅큼이나 될까말까 하는 곡식을 울망줄망 봉투에 담아 늘어놓아 손님을 기다리던 장하고 어여쁜 우리 자매들!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립할 경제력을 갖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다"며 장애에 따르는 어려움을 아프리카인 특유의 너그럽고 따뜻한 표정 뒤에 감추고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 여성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참여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UN같은 국제적 기구들을 통해 언급되기는 했어도 이 뜻을 실천하려는 나라는 극소수였으며 특별히 아시아 쪽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나마 캐나다, 영국, 덴마크, 벨지움 그리고 아프리카 등 몇 나라 여성 장애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만나기도 하고 권익 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홍콩에서 열렸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에서는 뉴스레터 수준의 연결망이 형성되었습니다. 아마 이 기구가 발전하면 조만간 아시아 내의 여성장애인 문제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봄 경주에서 여성장애인연대조직을 결성하기 위해 여성장애인분들을 경주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서로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을 감출 수 없었고, 힘을 모아 "함께 가보자"는 공통의지에 무조건 감격했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고 부족한 점도 많은 시작이지만 이 일은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강한 의지로 결속을 다지며 성숙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으며 해결의 실마리도 거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에 앞서 이 사회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를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한 힘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장애라는 처절한 아픔을 공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기(知己)가 되기에 충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임은 그 구성원들에게 힘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제부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여성장애인대회가 밑거름이 되어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이 전국적으로 힘차게 확산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낙영 <한국맹인여성회 회장>

먼저 오늘 전국여성장애인 대회를 개최하기까지 애써주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모든 여성장애인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맹인여성회는 1976년 1월에 시각장애인여성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 의해 불이익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10만 시각장애인여성의 권익옹호와 상호 부조 증진, 일반인과의 심리적, 문화적, 경제적 거리를 좁혀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불의의 사고에 의해 실명한 동료 여성들의 재활을 지원하기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시각장애여성들의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먼저 가정에서부터 시각장애여성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비장애인 가족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특히 집안에서 격리 또는 구타를 당하고 있는 동료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시각장애여성들도 존엄하고 소중한 인격체임을 일깨우면서 가족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찾아나가기 위한 기존 시각장애인계의 활동에서도 남성들과 나란히하여 정부에 대한 시각장애인여러분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는데도 힘써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1995년도 WBU(세계시각장애인연맹) 동아태지역의 여성분과 설립에 참여하였고, 1996년도에는 워싱턴에서 열렸던 세계 장애 여성 지도자 포럼에 참석하여 능력있는 장애 여성 지도자의 개발과 육성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이에 1998년도에는 우리 나라에서 제2회 WBU 동아태지역여성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외 활동을 통해 세계 여성장애인들의 삶과 각 나라 마다의 복지서비스와 직업교육 등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의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진국일수록 구분과 동정보다는 동등한 기회 부여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의 한 인원으로 당당히 일어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을 잘 시행하는 것을 보며 많은 부러움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제까지고 부러움만을 담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에 대한 선진 각국의 복지 정책이나 사회의 인식들을 부러워만 하며 우리 나라의 현실을 비판하기 보다는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 여성장애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 장애인들 하나 하나의 힘을 합하고 그동안 있어왔던 각 장애 영역 그리고 지역간의 여성들간의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허물고 하나된 목소리를 통해 여성 장애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구성〉

명예대회장

이우정(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수석대표)

대회장

김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고문

권호경(기독교방송국 사장), 김기영(서울시의회 의장), 김동완(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성수(대한 성공회주교, 성베드로학교 명예교장), 김정숙(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선(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장), 김학목(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회장), 박영숙(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서광윤(국립재활원 상근자문), 송월주(조계종 총무원장), 윤후정(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영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상 가나다 순

자문

김명섭(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완(한국청각장애인복지 회장회장),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주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복지위원장), 변영주(영화 감독), 손숙(연극인),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신선(여성여전도회전국연합회 총무),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안세준(한국농아인협회 회장), 이계경(여성신문사 사장), 이미경(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성재(국민회의 국회의원), 이정자(시민운동지원기금 상임이사장), 이청자(한국재활재단 사무국장), 최영희(내일신문사 사장), 한영애(국민회의 국회의원), 황연대(장애인복지체육회 부회장) 이상 가나다 순

운영위원장

이예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강복희(원주 작은집), 광정숙(광주 살림의집 재활원장), 김경화(한국여성장애인복지회 회장), 김근(대전 목소리 회장),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미영순(현대중국연구회 수석연구위원), 박우엽(한국농아인협회 부녀부장), 박을종(한국복지산업연구소 소장), 방귀희(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장), 백순희(전북도립장애인복지관 언어치료교사), 오혜경(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낙영(한국 맹인여성회 회장), 이문숙(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여성부장), 이정선(사람의소리방송 PD), 장영희(서강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장향숙(부산여성장애인연대 준비위원장), 채은하(빛장을 여는 사람들 위원장) 이상 가나다순

〈전 체 일 정〉

	10월 29일(목)	10월 30일(금)	10월 31일(토)
7시~8시		고요한 명상 (장소:1304호, 1306호, 1310호, 1312호, 1313호)	차분한 영상 (장소 : 1304호, 1306호, 1310호, 1312호, 1313호)
8시~9시		아침식사 (장소 : 지하 1층 그릴)	아침식사 (장소 : 지하 1층 그릴)
9시~10시		★ 분노를 풀어내는 마당 '들어라 세상아! 왜 하필 나인가' (장소 : 1304호, 1306호, 1310호, 1312호 1313호)	(종합토론) ★ 정리의 시간 '이모습이 나왔구나' (장소 : 14층 제1강의실, 제2강의실)
10시~11시			결의대회·폐회식 (장소 14층 제1강의실)
11시~12시			
12시~2시		점심식사 (장소 : 지하 1층 그릴)	점심식사 그리고 아쉬운 이별
2시~3시	접수 및 등록 (장소 : 14층 강당 앞)	★ 정체감을 찾는 마당 나를 찾아서 '내삶의 주인은 나' (장소 : 1304호, 1306호, 1310호, 1312호, 1313호)	
3시~4시			
4시~5시	'98 국제 연대 활동보고회 (장소 : 14층 강당)	어울림 한마당	
5시~6시	운영위원회의 (장소 : 1303호)		
6시~7시			개회식 (장소 : 14층 강당)
7시~8시			
8시~9시			
9시~10시	★ 만남의 마당 (장소 : 1304호, 1306호, 1310호, 1312호, 1313호)		
10시~11시		모든 것 잊고 자는 거야	

★는 프로그램 성격상 사전에 참가신청을 하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부 일 정>

'98 여성장애인 국제 연대 활동 보고서

'98년도 여성장애인과 관련한 국제대회 개최 및 참여 결과 보고를 통해 국제적인 여성장애인운동의 흐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여성장애인 복지정책 및 여성장애인운동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마당

- 일시 : 10월 29일(목) 오후 4시~5시 30분
- 장소 : 여전도회관 14층 강당
- 사회 : 미영순(현대중국어연구회수석연구원, 흑룡강대학객원교수)
- 순서

보 고 내 용	발 표 자
제2회 WBUD아시아 태평양지역 여성포럼 개최 보고	박향숙(한국맹인여성회 이사)
제11차 RIA태지역회의 참가보고	이예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특별위원장)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참가보고	심성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위원, 빗장 회원)
(종합토론) 질의와 응답	

개회식

- 일시 : 1998년 10월 29일(목) 오후 6시 30분~7시 30분
- 장소 : 여전도회관 14층 강당
- 사회 : 이정선(사랑의 소리방송 PD)
- 순서
 - 시작전 '96 제1회 여성장애인대회 비디오가 상영됩니다.
 - 여는시 박옥란(부산여성장애인연대회원, 시낭송가)
 - 여는말 이우정(명예대회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수석대표)
 - 인사말 김성재(대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 축하의 말을 담은 비디오 상영
 - 축하와 격려의 말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안세준(한국농아인협회 회장)
 - 내빈소개
 - 연대의 지평을 향하여 이예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낙영(한국맹인여성회 회장)

· 축하공연 맑음터 핸드벨콰이어

마나의 마당

참가자간의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의 시간

- 일시 : 10월 29일(목) 오후 9시~11시
- 장소 : 여전도회관 1304호, 1306호, 1310호, 1312호, 1313호

분노를 풀어내는 마당 (들어라 세상아 '왜 하필 나인가')

여성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쌓인 참가자들이 같은 문제를 가진 동료들과 만나 당당히 속내이야기와 과거의 차별경험 등에 의한 분노를 풀어내기 위한 마당

- 일시 : 10월 30일(토) 오전 9시~12시
- 장소 : 여전도회관 1304호, 1306호, 1310호, 1312호, 1313호

정체감을 찾는 마당 (나를 찾아서 '내 삶의 주인은 나')

편안한 만남과 공동 주제에 관한 이야기, 사이코 드라마, 역할극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정체감을 찾아나가고, 동시에 공동의 문제를 갖고있는 동료와의 만남을 통해 여성장애인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임에 대한 확고한 자각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당

- 일시 : 10월 30일(토) 오후 2시~5시
- 장소 : 여전도회관 1304호, 1306호, 1310호, 1312호, 1313호

어울림 한마당

모든 대회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체험, 스토리텔링, 역할극, 댄스셰라피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장애와 지역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연대감을 형성하고, 참가자 개인들의 요구와 바람을 풀어내어 이를 토대로 앞으로 여성 장애인운동이 가야할 방향을 찾아나가기 위한 마당

- 일시 : 10월 30일(금) 오후 7시~10시
- 장소 :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기념관
- 진행 : 배숙일(인천 여성의전화 상담부장)

내 용	출 연 및 진 행 담 당
장애인 바로 알기	모든 참가자
댄스째라피	인천 여성의전화 집단상담팀

종합토론 (정리의 시간 '이모습이 나왔구나')

대회 기간동안에 참여한 느낌과 자신의 변화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한 공감과 공유의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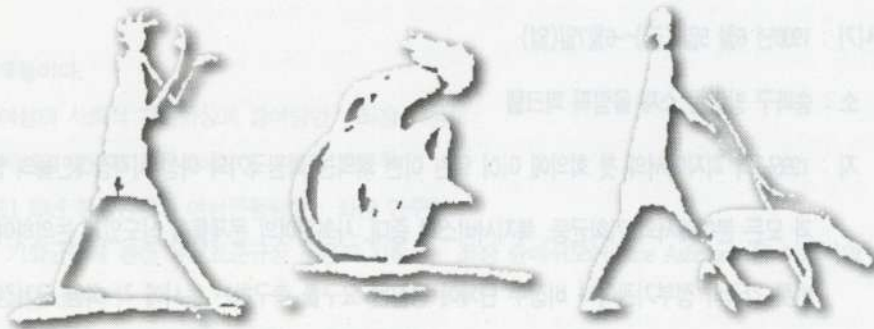
- 일시 : 10월 31일(토) 오전 9시~10시 30분
- 장소 : 여전도회관 14층 제1강의실, 제2강의실

결의대회 및 폐회식 (여성장애인 연대의 지평을 향하여)

- 일시 : 10월 31일(토) 오후 10시40분~11시30분
- 장소 : 여전도회관 14층 제1강의실
- 진행 : 채은하(빛장을 여는 사람들 위원장, 전주한일신학대학 신학과교수)
- 순서

내 용	연 사 및 시 행 자
여성장애인권리선언 · 행동강령 채택	장향숙(운영위원, 부산여성장애인대준비위원장)
전국여성장애인연합 준비위원회 구성	이예자(운영위원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특별위원장)
폐회사 · 선언	김성재(대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98 여성장애인 국제연대 활동 보고회



- 일시 : 10월 29일(목) 오후 4시~5시30분
- 장소 : 여전도회관 14층 강당
- 사회 : 미영순(현대중국어연구회수석연구원, 흑룡강대학 객원교수)
- 순서

보 고 내 용	발 표 자
제2회 WBU동아시아 태평양지역 여성포럼 개최 보고	박향숙(한국맹인여성회 이사)
제11차 Ri아태지역회의 참가보고	이예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특별위원장)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참가보고	심성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위원, 빗장 회원)
(종합토론) 질의와 응답	



제2차 WBU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포럼 개최 보고서

박향숙

〈한국맹인여성회 이사〉

- 개최시기 : 1998년 6월 5일 (금)~6월7일(일)
- 장 소 : 송파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 파크텔
- 취 지 : 1995년의 피지에서서 첫 회의에 이어 열린 이번 회의는 회원국가의 여성 시각장애인들의 인권평등과 모든 분야에서의 기회균등, 복지서비스의 증대, 사회참여의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유엔을 비롯 각국의 정부기관이나 비정부 단체에 응집된 요구를 촉구하는 동시에 각 회원 국가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마련되었다.

6월 5일 (금)

200명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낙영(한국맹인여성회 회장)의 환영인사로 막이 오른 본 회의의 첫 프로그램은 키키 노르스트럼(Kicki Nordstrom, WBU여성부회장 겸 여성분과 위원장, 스웨덴)의 진행으로 시각장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8가지 전략에 대한 주제토론을 벌였다. 주제를 보면 1. 만남의 기회만들기 2. 회원모집 3. 여성모임에 초대하기 4. 행동계획수립 5. 여성위원회조직 6. 여성지도자 선출 7. 일반여성들과의 협력 8. 조직망 구축 등이다.

공개토론 이후에는 각 국가별로 그 지역의 시각장애 여성들의 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발표와 “한국 시각장애 여성의 보장된 직업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김부순(한빛맹학교 교장)의 특강이 있었다.

저녁식사후 한국여성들과의 만남의 광장에서는 각국 참가자들과 행사장 근처를 산책하며 각국의 생활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한국음식을 나누며 우의를 다졌다.

6월 6일(토)

이날 첫 프로그램은 “다섯가지 억압상황 대처기술”이라는 공개토론과 상황극 재현이 이루어졌는데 다음은 그 다섯가지 억압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1. 여성이 따돌림을 당하게 될 때
2. 여성을 조롱거리로 만들 때
3. 여성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때
4. 여성을 무조건 비난할 때
5. 여성을 갖은 욕설로 비난을 하고 모욕을 줄 때로

이중 세가지는 당일 이루어졌고 나머지 두가지는 다음날로 미루어졌다.

각 주제에 따라 참가국 회원들이 억압사례를 상황극으로 꾸며 보여줌으로써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절감하며 한결 고양된 결속이 다져졌다. 이어서 시각장애인 정치학 박사인 미영순 박사(중국흑룡강 대학 객원교수, 현대중국연구회 회원)의 “여성 시각장애 노인의 복지문제”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오후에 이루어진 워크숍에서는 발표자뿐 아니라 참가자 전원이 각 분과로 나뉘어져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분과별 주제들이다.

제1분과 시각장애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참여방안 - 좌장 서성희

제2분과 시각장애여성의 인권과 평등사례보고 - 좌장 전인옥

제3분과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강령과 여성운동방향 - 좌장 안주연

제4분과 장애인의 기회균등에 관한 유엔표준규정 사용자 지침서 - 좌장 준애쉬모어(June Ashmore, 동-아태지역 맹인여성 위원장 겸 WBU 여성프로그램 담당, 호주)

제5분과 시각장애여성의 가정환경과 가족의 역할 - 좌장 장미향

지난 밤에 이어 가진 친교의 시간에 참가국 회원들이 다과를 들며 각국의 민요를 부르는 속에 동료애가 한층 무르익었다.

6월 7일(일)

6일에 이어 “억압상황에 대처기술”중 여성을 무조건 비난할 때와 여성을 갖은 욕설로 비난하고 모욕을 줄 때에 대한 방안 모색으로 상황극 재현과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날은 여성포럼의 마지막 날로 동아태지역 각 국가의 정부와 유엔에 전달될 시각장애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결의문 채택과 2000년 호주에서의 3차 여성포럼이 열리기 전까지 동아태 지역의 시각장애 여성지도자는 물론 모든 시각장애 여성들의 활동에 지침이 될 행동강령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동아태지역 각국의 시각장애 여성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지원하게 될 여성위원회의 임원단 선출이 있었다. 한국여성맹인회의 이낙영 회장을 비롯하여 피지의 안센린 젠느, 중국의 양지아, 베트남의 푸흥친, 호주의 마리엔 다리아몬드가 선출되었다.

행사를 마치며 여성포럼의 프로그램 기획하고 진행했던 키키 노르스트롬(Kicki Nordstrom, WBU여성부회장 겸 여성분과 위원장, 스웨덴)은 그동안의 한국맹인여성회의 활동에 대한 치사와 함께 시각장애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국 정부에 대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 미흡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우수한 시각장애 여성지도자들의 개발과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시각장애 여성들의 권리와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11차 RIA·태지역회의를 다녀와서

이예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특별위원장, 서울시의원〉

들어가기

여성 장애인의 관한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체적인 이번 모임의 흐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RI(국제 재활 협회)는 70여년의 역사를 갖고, 전문성을 갖춘 국제적인 재활기구이지만 여성 장애인에 관한 한 아직도 많은 관심을 촉구해야 할 기구인 것 같다. 본 회의에서 여성 장애인 문제에 할당된 시간은 자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회의가 개최된 이들 동안에 이 지역 여성 장애인을 위한 시간은 총 4시간 30분이었고 그중 이 지역의 여성 장애인들간의 네트워크(NETWORKING) 위해 주어진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였다. 전반적으로 여성 장애인간의 정보 교류나 연대를 모색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나마 준비관계등의 이유로 시작하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지연된 데다 본인 앞에 이미 여섯 명의 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룹 토의를 통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몹시 부족한 시간이었다. 아무튼 좀 더 이 문제를 심도 있고 전문성 있게 논의할 기회가 오기를 바라면서 본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 장애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비록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여성 장애인간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렀고 이를 위해 호주의 세리 화이트가 뉴스레터를 만들기로 결정을 모았다

분과는 셋으로 나누어져 섹슈얼리티(sexuality)와 출산, 어머니로서 자녀의 양육 경제력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의 근거가 되었던 발표문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sexuality-Anne Hawker. DPI. NZ 전 회장

성정체감(sexuality)은 남녀의 신체의 특정한 일부의 접촉만은 아니다.

이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폭넓게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는 특정한 성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의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 감각적인 면에서의 모든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 더 넓게는 개인의 생각, 가치관, 경험, 상상, 학습 등을 모두 포함한다. 건전한 성정체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성의 발달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또 필요한 지식을 접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에서까지도 혹은 재활원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 중성으로 취급받고 성장하기 쉽기 때문에 성인으로서 자신의 성정체감과 이를 따르는 요구를 수용하기도전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자신에 대해 가치성과 자존감을 갖는 것은 성적인 표현으로 중요하며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타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비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사랑을 잃었을 때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느끼는 것은 어렵다. 우리 모두는 성적인 존재로서 성정체감은 단순한 성교가 아닌 사람의 예술로서 타인과의 관계성을 의미한다. 장애인을 무성의 존재로 신화화시키는 작업을 멈추고 여성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건전한 여성 장애인의 성정체감의 형성을 돕도록 하자.

B. 출산과 부모의 역할

UN의 기본법은 장애인들이 성을 경험하고, 성관계를 갖고 부모가 되는 경험을 하는 일에서 거부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장애인이 부모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 국가는 여성 장애인의 어머니의 역할, 성,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는 조치를 취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언론도 이에 대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여성 장애인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때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심리적인 이유 등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타인과 공유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때 할 수 없다고 믿거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자신의 역할을 타인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이는 아이에 대한 모든 결정을 타인이 하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아이도 엄마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되는 일은 물리적이거나 아이를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만이 아닌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 애정과 책임이 함께 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갖기 원한다면 주저 말고 갖도록 하자. 이것은 여성 장애인의 마땅한 권리이며 타인이나 사회가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C. 경제

여성 장애인들은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성과 장애에 따른 고통을 받아 왔다. 그들의 능력에 따른 오해로 사회 참여가 어려웠으며 또한 경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교육에 있어서도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의 참여는 극히 제한된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해고당하기 쉽고 월급이 남성보다 적거나 복지 혜택이 적은 곳에 주로 몰려 있다. 호주의 여성 장애인은 46%가 일을 하고 있으나 캐나다의 여성 장애인은 74%가 실직상태라고 한다.

독립성은 여성장애인의 중요한 개념으로 '장애'는 그 반대를 의미하게 되며 여성장애인은 비독립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 다.

그러나 1989년 'Independent living movement'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독립성이란 도움없이 행사할 수 있는 육체적이거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 이 개념에 의하면 여성장애인도 독립성을 갖게 되고 경제력도 가능하게 된다.

맺음말

먼저, 보다 활발한 여성장애인들의 활동이 필요하며 한국 장애인단체들이 더 열심히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선택되어 논의되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회의의 이점은 많은 정보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제회의 등을 통해 우리의 역할을 알려내고 또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배울 점을 찾아 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본다. R내에 여성위원회가 하루 빨리 결성되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동아시아 여성포럼 참가 보고

심성은

〈장애우원의문제연구소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위원, 빗장회원〉

제 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이 지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에서 열렸다. 워크숍은 경제, 인권, 정치 분야에 각각 썬그룹 세 개씩을 두어 아홉 개의 주제로 열렸다.

그런데 아홉 개 주제에 대한 토론이 모두 같은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각 주제에 대한 토론 시간은 약간 늘어났는데 비해, 참가자들은 자기가 들어갔던 주제 외에 다른 분야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번 워크숍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워크숍 # 1 세계화, 여성과 일과 삶

주제 1 : 고용과 유소득 세대, 여성과 경제 상황 향상

주제 2 : 농촌 여성 문제

주제 3 : 아시아의 구조조정과 경제위기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워크숍 # 2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주제 1 : 여성차별

주제 2 : 여성폭력

주제 3 : 건강, 성, 그리고 출산의 권리

워크숍 # 3 여성의 정치 세력화

주제 1 : 정치구조와 선거법

주제 2 : 의회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주제 3 : 정치 교육과 훈련

2년에 한번씩 열리는 동아시아 여성포럼은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마카오, 몽골등 동아시아 8개국의 참가를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북한과 마카오가 빠져 6개국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6개 도시여성 단체에서 20명이 참가하였다.

외국 참가자는 일본이 61명, 중국 6명, 대만 12명 홍콩 1명

몽골에서 200여명 이상이 참가하였고 특히 대만에서는 남편 2명이 참가하여 많은 여성들의 눈길을 끌었다.

나는 워크숍 2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의 주제 1인 여성차별 부문에서 '한국의 소외계층 여성문제와 여성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성연합이나 여성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단체는 없다.

이처럼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비가입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에 이어 이번 3차 포럼에 장애우원의문제연구소가 참가하게 된 것은 여성장애인 운동이 일반 여성운동과 국내외적으로 연대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것이다.

8월 23일

포럼기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등 외국 참가자들이 대부분은 울란바타 시내에 있는 바양갈 호텔에서 묵었다. 이 날 이 호텔에서 참가자 등록이 오후 4시부터 시작되었고, 이어 6시부터 개회식을 겸한 환영만찬이 열렸다.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데 있어 나는 아니 우리 연구소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운이 좋았다. 이 자리에서 우리측 대표 신혜수 교수가 인사말을 하면서 특별히 나를 소개하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장애인 한 명이 발표를 하기 위해 참가하였다. 이번 기회에 장애 관련 종사자나 몽골에서 활동중인 여성 장애인을 만나보고 싶어한다'고. 덕분에 나는 시작부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이날 식사가 끝날 무렵 도쿄 주재 미국의 한 언론사에 근무하는 캐린과 그 자신도 청각장애인이면서 몽골 청각 여성장애인협회장을 맡고 있다는 셀린지를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캐린은 한국의 여성장애인 상황에 대해 몇가지 취재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도착하기 몇일전 몽고에서 일어났던 남성 장애인 분신 자살기도사건에 대한 정보와 그 사건이 보도된 몽골의 주간 뉴스지인 The UB Post를 주었다. 그 기사

는 '시위자 스스로 제물이 되려고 했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8월 13일 몽골 자유의 광장에서 있었던 반정부 시위에서 (장애인들만 모인 것은 아님) 잡발이라는 장애인 협회 회원이 분신을 기도했다. 경찰의 저지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다리와 옷이 탔다. 잡발의 말에 따르면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3명이 모두 청각, 언어장애인인데 정부가 주는 월 6,420트구루의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극심한 빈곤을 견디다 못해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처지를 장애인 연합회와 보건 장관까지 호소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치료를 거부하고 또다시 목을 매어 자살하려 했다는 마음 아픈 내용이었다.

8월 24일

8시 30분 참가자들이 묵고 있는 바양갈 호텔 맞은편에 있는 '어린이 궁전'이라고 불리우는 건물에서 포럼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었다. 이 날 각 국가별로 지난 2년간의 활동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성 실업자 문제, 노인 여성의 문제, 폭력, 이주 여성의 문제 등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최영희 한국여협 회장이 '한국여성의 발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의 각 주제별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발표를 하기위해 이틀간 내가 들어가야 했던 방은 3층이었다. 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관계자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자 사전에 배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나를 의자에 앉힌 뒤 두 명의 남자가 들어서 삼층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한국의 극단적인 소외계층, 여성장애인 차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대부분 소외계층 여성들에 대한 실태 파악 자료가 없었던 탓에 소외계층 여성중 하나인 여성장애인 차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다음 4차 포럼부터는 이 문제를 별도의 워크숍주제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참가에 앞서 한국 NGO에서는 우리측 참가자중 여성장애인이 있다는 것을 몽골에 알리고 현지의 여성장애인들의 많은 참여를 제안했다고 한다. 그래서였을까 기대에는 못미쳤지만 몽골의 여성장애인이 두명이 참가하여 내 발표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한 명은 지체 장애여성 투그스바이이고, 또 한명은 개회식에서 만난 셀린지였다. 그녀들은 내가 발표를 하고 마치자 엄지손가락을 세워 흔들어주기도 하고 포럼기간

내내 나의 주변을 맴돌면서 시종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밖에도 그 방에서는 여성차별이라는 주제 아래 노인여성 문제, 대중매체를 통해 나타나는 여성성의 상품화와 교육계를 비롯한 대부분 직종 고위직을 남성이 차지하고 있는데서 오는 문제와 차별, 전쟁시 여성과 어린이에게 행해지는 차별과 폭력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날은 각국의 발표만으로 지정된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발표자는 한국, 대만, 몽골 각 1명씩, 일본에서 3명이 발표를 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제한시간을 대부분 초과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저녁 식사 전까지 통역의 도움으로 셀린지와 투그스바이를 취재했다. 셀린지의 말에 의하면 몽골에는 전국에 청각, 맹, 농, 지체장애인 등 각부분의 장애인단체가 10개 있는데, 그 모든 단체들을 다스리는 연합회가 있다고 했다. "장애인 민족연합"이라고 하는 이 연합회는 현재 복건부 장관이 최고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했다.

투그스바이는 여성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그룹 여성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기관에 소속된 여성 장애인이었다. 나는 다음날 그 훈련원에 가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오후 7시 저녁식사는 울란바타에 있는 한국 식당인 '서울 레스토랑'에서 하게 되었다. 도착하면서부터 몽골식과 양식이 어중간하게 혼합된 식사에 울란바타에만 한국인이 250여명이 살고 있다고 했다. 식후 '국제 문화의 밤' 시간에 각국의 참가자들은 나름대로 준비해 온 그 나라 특유의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즐거워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참가자들이 한복을 입고 나가 아리랑을 불렀고, 청주대학 무용과 강혜숙 교수가 살풀이 춤을 선보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8월 25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각 주제별 워크숍에서는 전날 나온 발표 내용들을 근거로 행동 계획을 채택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방에서는 일본 여성 발표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탓에 내가 발표한 내용들이 초반에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중간에 있었던 차 마시는 시간 이후부터는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여성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소외계층 여성 차별이 해결될 때 모든 여성차별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리측 전망에 다른 발표자들이 공감했기 때문일까, 때문에 그날 발언의 기회

는 물론이고, 질문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던 대만과 몽골 발표자들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날 토론과정에서 켈린지가 이런 말을 했다.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이 경제적 능력을 가지려면 정부로부터의 지원과 힘있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어느 나라 정부나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여성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앞으로 여성장애인 민간단체가 다른 나라와 연대해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는 10월에 한국에서 있을 여성 장애인 연합 결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11시까지 열렸던 이 날 토론에서는 대중매체에서 행해지는 왜곡된 성 관념과 상품화되는 현상을 조정해야 한다, 각 분야의 고위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을 증가해야 한다는 것 등의 의견과 함께 다음 4차 포럼에는 소외계층 여성 문제를 별도의 주제로 선정해 논의할 것을 중요한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하고 끝이 났다.

오후에는 NGO방문 프로그램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모두 6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관심있는 몽골 기관을 방문하였다. 나는 다섯 번째 그룹에 들어가 편모, 빈민 여성장애인들에게 직업 훈련을 시키는 곳과 여성 리서치 센터를 방문하였다.

그 중 직업훈련원에서는 몽골에서 많이 생산되는 케시미어와 울, 가죽 등을 가공하고 제품화 시키는 일을 가르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몽골에서는 제품을 생산해도 파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수출활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8월 26일

오전 9시부터 3박 4일간의 포럼일정을 마무리 하는 폐회식이 시작되었다. 이 날 폐회식에서는 아홉 개 주제에서 나온 의견들로 결의문과 2000년까지의 행동계획이 인쇄되어 나왔다. 그런데 주제별 워크숍에서 열린 토론에 부쳐졌던 소외계층 여성문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분야에서도 있었던 듯 그 자리에서 다시 열린 토론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주체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윤정옥선생의 강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나 또한 소외계층 여성문제를 4차 포럼부터 별도의 워크숍 주제로 선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다행히 그것이

받아들여져 향후 행동계획에 여성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여성문제를 별도의 워크숍 주제로 선정한다는 사항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나에게서는 참으로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날은 진행상의 문제로 수정된 결의문과 행동계획을 문서로 공유하지는 못하고 회의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에 돌아온 며칠 후에 몽골로부터 받아보았다)

소외계층 여성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정리된 개념은 없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노인 여성, 농촌 여성, 빈곤 여성, 동성애 여성, 매매춘여성, 외국인여성근로자, 탈북여성, 양심수와 관련한 여성, 미혼모 등 여성이라는 굴레 이외에 또다른 차별의 소지를 안고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여성을 소외계층 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나 또한 소외계층 여성, 그 중에 가장 차별을 많이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중 한 사람으로써 이번에 얻은 성과가 참으로 기쁘다. 하지만 2년 후에 대만에서 열릴 4차 포럼에서 소외계층 여성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노력들은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계를 비롯하여 많은 소외계층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당부하고 싶다.

이번에 한국어 통역이 시원찮아 우리나라 참가자들의 많은 불만을 산 것을 비롯해 개최국으로써 미비한 점이 많았지만 몽골은 이러한 국제 회의를 자기나라 문화 홍보를 위한 기회로 삼았던 것 같다. 포럼이 열리는 기간 내내 울 스웨터와 펠트 모자, 가죽 제품들은 그나라에서 생산되는 수공품들을 팔았다. 그리고 국민대접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동할 때 마다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앞뒤에서 호위하는 것도 좀 우습긴하지만 기분좋은 일이었다.

폐회식후 포럼 참가자 300명은 포럼장에서부터 몽골국회의사당 앞까지 폭력반대시위 행진을 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신혜수교수가 몽골여성들을 위해 특별히 제안한 것이라고 하는데 몽골에서는 이런 시위가 보기 드문 일이라고 했다. 나는 오래 걷기가 힘들어 휠체어를 타고 참여했다.

오후에 몽골의 Tourist캠프에서 말타기와 씨름과 활쏘기로 이루어진 나담경기를 관람하고 몽골 전통 요리로 차려진 저녁 식사, 댄스파티를 끝으로 포럼은 막을 내렸다. 포럼 기간중 나는 몽골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짬짬이 그들과 인터뷰

를 했다. 그 중 몽골남성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도 한국에는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사는 여성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성차별과 장애차별이 심하기 때문이다. 나는 몽골이 한국과 같은 상황이 아니길 바라고 있다. 아울러 이 지구상에 여성의 가치를 신체적인 것에서만 찾으려 하지 않는 남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평등하고 좋은 세상은 여성들 스스로의 노력과 남성들의 인식변화가 맞물려야 이루어질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고.

뒷이야기

포럼에 참가하기에 앞서 8월 7일 준비모임이 용산 여협강당에서 있었다. 처음에 나는 한국 NGO운영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일반적인 여성차별문제를 드러내고 거기에다 약간의 여성장애인문제를 덧붙여도 좋다는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 이 준비모임에서 다른 참가자들의 제안과 지지로 소외계층 여성 문제, 그 중 여성장애인차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쪽으로 급속히 방향이 전환되었다. 나에게 있어서는 비록 짧은 시간안에 발표문을 다시 써야한다는 부담이 생기는 했지만 여성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여성에 있어서는 행운이었다.

우리나라 참가자들은 경비 절감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울란바타와 서울을 오가는 몽골 직항을 이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포럼일정은 3박 4일이었지만 7박 8일간을 몽골에서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포럼 앞뒤로 남는 사나흘을 몽골문화기행을 하게 되었다. 몽골이란 대체 어떤 나라인가. 준비모임에서 한국 주재 몽골 대사관 일등서기관인 락바씨로부터 몽골 사회와 문화에 대해 설명을 듣기 전까지 몽골은 나에게 있어서 잘 모르는 나라였다. 우리가 흔히 몽고라고 부르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 것을 아주 싫어 한다고 한다. 가끔 중국에 속한 내몽고 자치구와의 혼동으로 몽골을 중국의 일부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럴 때 마다 자기 나라는 중국과는 무관한 독립국가라고 열심히 설명하곤하던 몽골 사람들이 생각난다.

몽골의 국토 면적은 1천 5백만 평방 킬로미터로 한반도의 7배, 남한의 15배이다. 사면이 육지에 접하고 있어서 바다를 볼 수 없다. 96년 현재 인구가 2백 30만명으로 그중 60퍼센트정도가 도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도시는 아직 공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공기가 매우 좋았다. 13세기초 징기스칸이 세운 몽

고 제국이 지금의 몽골로서 엉덩이에 푸릇한 몽고 반점을 지니고 태어나는 우리와는 먼 조상이 같은 종족이기도 하다. 기후는 매우 건조한 대륙성 기후로 봄에는 바람이 아주 강하며 6월부터 9월까지의 우기에 속한다. 겨울은 아주 춥고 4월까지 눈이 내려 몽골을 찾는 관광객은 여름 한철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몽골은 89년부터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나 개방 경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몽골에는 아직도 국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해 주어야 할 주택이나 기업이 남아 있는지 이번 포럼에서 만난 몽골 참가자 중 시청 제무담당이라는 한 여성이 나에게 한국에서는 장애인에게 중소기업등의 운영권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 주는지 알고 싶다고 물어와 난처해진 적도 있었다.

몽골 사람들은 아직도 60퍼센트 정도가 '겔(Gar)'이라고 부르는 전통 가옥에서 산다. 기원전 2천 5백년 쯤부터 몽골족들이 사용한 가옥 형태로 가운데 나무 기둥 하나를 세우고 그 기둥을 중심으로 여러개의 나무를 우산살처럼 조립해서 둥근 천정을 만들고 그 가장자리로는 군데군데 기둥을 박아 세운다. 그 위에 동물의 털을 깎아 만든 두꺼운 펠트를 덮고 다시 한번 가죽을 씌워 완성한다. 가축에게 먹일 풀을 찾아 이동이 잦은 유목 생활에 맞게 접어서 이동하기 쉬우며 방수, 방한 효과가 크다고 한다. 우리나라 참가자들도 포럼 전후 하루씩을 이 겔에서 지내볼수 있었다.

포럼 전에 우리 일행은 고비 사막을 관광하였다. 아침 일찍 우리 일행은 한시간 반가량 50인승 소형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가서 다시 두시간동안 버스를 타고 평원을 달린 후에야 고비의 모래언덕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우스 고비는 몽골의 18개 주 중 하나로 전국토면적의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순수한 모래사막은 3퍼센트밖에 되지 않는다. 부드러운 황갈색 모래언덕 멀리 낙타무리가 들판을 헤치고, 머리 위로는 푸르디푸른 하늘과 흰 구름, 맑은 공기가 있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에 내려 쏘이는 햇빛 속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언덕이 군데군데 거스름하게 보이는 것은 구름 그림자가 드리워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지평선과 함께 참으로 신기한 풍경이었다. 그날 오후 우리 일행은 고비에 사는 원주민을 방문했다. 우리가 들어가자 마자 불이 발그레한 주인 여자가 그릇에다 손수 만든 치즈를 담아 내어 권했다. 몽골에서는 음식을 사양하는 것은 호의를 거절하는 것



으로 비칠 수 있고, 음식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받아야 하며, 선물은 받는 즉시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넣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 얼른 한조각 받아들긴 했지만 그맛은 쉽게 친숙해지지 않았다.

몽골인 한 가족이 사용하는 겔은 대부분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방으로 쓰고 하나는 부엌으로 쓴다고 한다. 온 가족이 한방에서 지내게 되는데 집안의 웃어른인 주인이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원주민 겔에는 천에다 수를 놓은 여러개의 장식이 눈에 띄었다. 우리 일행은 그곳 원주민이 기르는 낙타를 잠시 타보기도 했다. 나는 스커트를 입었다는 이유와 위험할 것 같다는 이유로 한사코 낙타 타기를 사양했지만 우리 참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괜찮다고,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낙타를 타보겠냐고 부추기는 바람에 기어이 쌍봉 낙타 등에 높이 올라 보았다. 그 때, 땅거미가 내리는 지평선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방문을 마치고 그곳을 떠나려는데 말은 안 통했지만 순박하고 해맑은 얼굴로 우리는 맞아주었던 주인 여자와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서운했던지 나는 무엇이든 줄 것을 찾아 가방을 뒤졌다. 하지만 별로 줄만한 것이 없었다. 생각다 못해 쓰려고 가지고 다니던 체리색 손수건 한 장을 찾아내어 그녀 손에 쥐어 주었다. 그것을 받아든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날밤 우리는 숙소로 정한 겔 캠프에서 저녁 식사후 몽골의 전통음악 연주를 들었다. 음악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고루 받은 듯 동양 음악의 특징과 서양 음악적 요소가 어우러져 있어서 쉽게 친근감이 들었고, 유목민들만이 갖는 독특한 정서가 배어 있었다. 그 중 목과 혀를 놀려서 발성을 하는 남성 성악은 그 기법이 생소해서 어쩐지 묘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몽골 전통음악 연주를 듣고 숙소로 돌아가다가 올라다 본 하늘에는 별무리가 머리 위로 쏟아질 듯이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난히 무더웠던 한국의 여름을 뒤로 하고 몽골로 날아간 우리는 그날 밤 겔 가운데 놓인 난로에 장작을 지피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는 타닥타닥 가죽 천막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메마르고 막막한 사막의 어둠 속에서 듣는 빗소리, 그것은 고단한 여행을 하고 있던 나에게서는 어쩐지 선물처럼만 느껴졌다. (때문에 다시 울란바타

로 돌아가는 비행기의 운행이 한시간 이상 지연 되었지만) 게다가 아침 식사를 마칠 무렵에는 무지개까지 떠올라 우리 일행을 기쁘게 해 주었다. 공해 때문에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진풍경이었다. 울란바타 시내에는 간간이 러시아식 건물이 눈에 띄었지만, 얼굴 생김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거리에서 쉽게 눈에 띄는 한국차들, 그 중 우리나라 중고 차가 수입되었는지 영종여객, 타는곳, 내리는 곳이라는 한글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다니는 버스를 보면서는 나는 잠시 한국의 어느 중소도시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 백화점과 상점에도 한국상품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몽골인들의 말에 따르면 질은 좋지만 너무 비싼 일본 상품과 값은 싸지만 질이 떨어지는 중국 상품에 비해 한국 공산품이 인기는 매우 높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대학의 한국어 학과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내가 만난 몽골인중에서도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최근 20년 동안 몽골의 여성 지위는 엄청나게 향상되어 현재 교사의 80퍼센트, 전문 경제인의 46퍼센트, 엔지니어의 24퍼센트가 여성이라고 한다. 지방법원의 경우 90퍼센트가 여성 판사이고 몽골 국립대학생의 70퍼센트가 여학생이라고 한다. 포럼 기간내내 우리는 체격이 크고 당당한 몽골 여성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몽골에서는 여권 신장이 아니라 남권신장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스개 소리가 나올만큼 여성들의 입지가 확보되어가고 있다고 하니 향후 몽골여성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몽골은 서울에서 생각할때는 잘 모르는 먼 나라였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 올때쯤에는 매우 친숙하고 어쩐지 전생의 어디쯤에선가 인연을 맺지 않았을까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나라였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 여름 포럼에 참가하여 얻은 기대 이상의 성과는 여름내 우리가 흘린 땀의 수고를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애써준 우리나라 참가자들과 연구소 사람들, 그리고 두 번씩이나 바뀌는 발표문의 영역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나의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다.

'98 제2회 전국여성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외와 편견, 그리고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성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삶이 이처럼 굴절되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장애인문제가 장애계와 여성계 모두의 영역에서 소외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여성장애인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1994년

활동을 전개

이후 연구

연대 사업

1996년에는

보라매공원에

이 사용하기

실시하여 많은

성대회에서

세계 선진

장애인의 지위

성들과 남성장

식과 지도력 개

과정이 마련되

따라서 우리

인 연대의 지평

를 찾아나가기

여성이기 기록하고 여성이기 기억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등도
서관여성이기 기록하고 여성
성이기 기록하고 여성이기 기록
성평등도서관여성이기 기록
기록하고 여성이기 기록하는
을 기록하고 여성이기 기록하
바로 이곳 성평등도서관여
여성이기 기록하고 여성이기
하는 여성을 기록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바로 이곳 성평
도서관여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genderlibrary.or.kr

상담, 여성단체와의 연대 및 국제
집중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를 개최하였습니다. 3박4일 동안
청강연을 비롯하여, 여성장애인
인권법률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받아 지난 '97년 빛장은 한국여

이 여성포럼을 개최하여 여성
한 가운데 다른 각 부문의 여
선 요구되는 주체적인 자기인
더침포럼과 같은 별도의 연수

그리고 '권리찾기'(여성장애
주체로 나서 스스로의 권리

를 찾아나가기

구체적으로 (가칭)전국여성장애인연합을 구성하여 각 지역별로 여성장애인모임을 조직하고 연대함
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된 여성장애인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98 제2회 전국여성장애인대회는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운동을 전개해온 여성장애
인과 앞으로 이 운동에 함께해 나갈 여성장애인의 자아 발견과 지도력 개발에 중점을 두어 진행될
것입니다.

'98 제2회 전국여성장애인대회 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37-061)

전화: 02)521-5364, 팩스: 584-7701 통신판: 천리안·나우누리 COWALK